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2015년 12월 22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21일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김동주 과장(044-203-4530), 박희범 사무관(4534)
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최용호 과장(02-2156-9750), 윤동욱 사무관(9671)

투자용 기술평가, 기술금융에 날개를 달다!

- 산업부-금융위, 상호 협력 통해 투자용 기술평가모형 개발 -

□ **창조경제 구현의 핵심** 구성 요소인 **기술금융 활성화**를 위해 **산업부와 금융위**가 힘을 모을 예정이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와 금융위원회(위원장 임종룡)는 기존 대출 중심의 **中企 자금 조달**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적인 투자 촉진을 위해 **투자용 기술평가모형**을 개발하였다.

○ 지난 6월부터 시작한 모형개발은 산·학·연 관련 전문가 등 30명 내외로 구성된 **자문단을 통해 의견을 수렴**하고, 기술평가 모형 관련 **포럼 등을 통해 기술금융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**하여 개발되었다.

□ 이번에 개발된 기술 평가모형은 평가 대상을 사업화 이전 기업, 사업화 이후 기업, 일반기업 등 기업의 **성장단계별*로 분류**하고, **경영역량, 기술성, 시장성, 사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가 구성**되어 있다.

* **① 사업화 이전 기업 :** 창업후 5년 이내, 출시 제품 無, **② 사업화 이후 기업 :** 창업후 5년 이내, 출시 제품 有, **③ 일반 기업 :** 창업후 5년 이후

【 투자용 기술평가모형 주요 지표 구성 】

구분	주요 세부 지표
① 경영역량	기업가 정신과 신뢰, 최고경영자 등
② 기술성	기술개발현황, 기술개발 능력, 기술보호성 등
③ 시장성	시장현황, 경쟁상황, 제품경쟁력 등
④ 사업성	사업능력, 향후 전망 등

□ 동 평가 모형은 기업의 안정성 및 부실 위험 예측에 중심을 둔 기존 여신 심사용 평가 모형과는 달리, **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여 우수 기업 발굴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.**

○ 이에 따라 동 모형에서는 투자자가 강조하는 **기업가정신, 신뢰성, 기술보호성, 성장성, 수익성** 등 **투자관점의 평가지표가 강조**되었고,

○ 여신용 평가 모형에 비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예측하는 **기술성, 시장성**에 대한 **배점이 강화**되었다.

□ 산업부와 금융위는 평가모형을 기술신용평가(TCB) 기관, 기술평가기관 등에 배포하고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되, 동 **평가 모형 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행***할 예정이다.

*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 설명회 개최('16.1월 잠정), 기술평가 우수 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펀드 출시, 금융권 실적 평가에 동 모형 활용 여부 반영 등

【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 활성화를 위한 지원(안) 】

◇ **(산업부)** 평가비용 지원을 통한 평가기관·피평가 기업 부담 완화, 기술평가 우수 기업 투자 전문 펀드 출시 등
-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사업('16년 8억원, 평가비용 일부 지원) 연계 지원
- 기술평가 우수 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펀드 출시('16년 300억원 규모)

◇ **(금융위)** 금융권 평가에 동 평가모형 적용 여부 포함, 성장사다리 펀드와 연계
-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평가(TECH평가) 中 "기술기반 투자" 평가시 동 평가모형을 활용한 투자를 실적으로 집계
- 성장사다리 펀드 內 기술평가 기반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에 동 평가 우수 기업 포함

□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"금번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을 통해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**투자자-수요자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"라고 밝혔다.

○ 산업부와 금융위는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박희범 사무관(☎ 044-203-4534),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윤동욱 사무관(☎ 02-2156-96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5-12-21 16:51:34